산업통상자원부	보도참고자료	http://www.motie.go.kr

2018.7.12.(목) 오전 11시부터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7.12(목)	담당부서	동북아통상과, 미주통상과
담당과장	김현철 과장(044-203-5690) 김장희 과장(044-203-5290)	담 당 자	주원석 서기관(044-203-5691) 조아라 사무관(044-203-5694) 이은희 서기관(044-203-5624) 박서현 사무관(044-203-5656)

산업부, 미국 · 중국 통상문제 본격대응

- 미 · 중 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가동을 통한 영향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-
- 미 자동차 232조 공청회(7. 19.-20.) 대응과 주요인사 현장 설득활동 논의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7. 12.(목)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-중 무역분쟁과 미국 자동차 232조 대응 관련 관계부처 및 업계, 전문가들과 회의를 갖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.

< 회의개요 >

① 「미중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」
- 일시/장소 : '18.7.12(목) 08시, 무역보험공사 회의실
- 참석 :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, 기재부, 외교부, 국무조정실, KOTRA·무역협회·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, 8개 업종별 단체, 대외경제정책연구원·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

② 「美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TF회의」
- 일시/장소 : '18.7.12(목) 10시, 무역보험공사 회의실
- 참석 :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, 기재부·외교부·국방부 등 관계부처 국과장, 자동차산업협회, 자동차산업협동조합, 현대자동차그룹, 한국지엠, 르노삼성자동차, 쌍용자동차, LG전자 및 무역협회 등

[미·중 무역분쟁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]

□ 회의에서는 7.10일(현지시간) 미국 무역대표부(USTR)가 301조에 의거해 2,000억 달러 규모(6,031개 품목)의 **대중(對中)수입**에 대해 **10% 추가 관세부과 계획**을 발표한 데 따른 **수출, 업종별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**했다.

□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"**미-중간 무역분쟁의 장기화·확산 가능성**이 있으므로 **민관이 합심해 주도면밀히 대응해 나갈 필요**가 있다."라고 **강조**하고,

○ 이번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 계획에 따른 **수출입 영향 및 업종별 파급효과**에 대해 산업연구원과 업종별 협·단체가 **면밀히 분석**할 것을 당부하고,

○ 코트라·무역협회에는 해외 주요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 바이어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수출대체선 지원 등 **피해우려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**을 강조했다.

○ 더불어,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중국의 제조업 굴기 견제 등 301조 무역분쟁 이면에 제기되고 있는 양국의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는 향후 **미-중간 무역분쟁 전개 상황별 대응방안을 마련**하고, 이에 따른 대응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을 말했다.

□ **업종별 단체는 이**번 미국정부의 추가 관세부과 계획이 현실화했을 때 미칠 영향을 현재 분석중에 있으며

○ 중국에 진출한 우리 투자기업의 경우 생산제품 대부분이 **중국 내수용으로**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,

○ **중국산 가전·컴퓨터·통신기기** 등이 금번에 발표한 추가 관세부과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품목에 소요되는 **우리 중간재 수출이 감소**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.

□ **수출지원 기관**들도 면밀한 상황점검과 함께 미-중간 무역분쟁으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.

○ **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KOTRA)**는 무역관을 통해 점검한 결과, 구매인(바이어)이 당장의 영향 보다는 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태 장기화시 부품공급망 변경들을 검토하는 기업으로

- 아세안, 인도, 러시아 등 **신남방·북방지역 중심**으로 해외 전시회, 무역사절단 등 **대체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마케팅**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
○ **무역보험공사**는 미·중 수출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기업 신용조사 보고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, **무역분쟁에 따른 수출피해기업**들에 대하여 **우선적으로 지원**할 계획이다.

○ **무역협회**는 국내 13개 지부를 통해 무역업체들의 애로를 일일 파악중이며, 아세안 지역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FTA활용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.

□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대외무역환경의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며,

○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을 계기로 수출시장 다변화, 고부가가치 수출제품 육성 및 서비스 수출확대 등 **우리 수출의 구조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전개**해 나갈 예정이다.

[미국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 T/F 회의 개최]

□ 회의에서는 미국 상무부의 **자동차 232조 조사**와 관련, 정부와 민간의 **동향을 공유하고 대응현황을 점검**하는 한편, **공청회 참석과 대미(對美) 주요인사 현장 설득활동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**하였다.

1 공청회(7.19-20) 대응방향

□ 우선 미국 상무부에서 개최 예정인 공청회에는 **정부대표로는 강성천 차관보**가, **업계**에서는 **현대자동차와 엘지(LG)전자 미국 현지 근로자** 등이 발언을 추진 중이다.

○ 이를 통해 우리 **정부와 업계의 입장이 입체적으로 전달**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.

2 주요인사 현장 설득활동(아웃리치) 계획

□ 아울러, 공청회를 계기로 **범정부적·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**해 미국 주요인사 현장설득활동을 **전개**하기로 했다.

□ 사절단은 **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**을 대표로 산업부, 외교부, 기재부 등 **관계부처**와, **자동차산업협회** 김용근 회장, **현대자동차** 정진행 사장, **무역협회** 한진현 부회장 등으로 구성되며,

○ 미국 **정부 관계자**, 우리 **자동차 투자 주(州)**(조지아, 앨라배마 등) 및 **통상담당 미국 의원, 미국 자동차 관련 단체** 등을 만나고,

○ **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 개정협상**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관련 관심이 이미 반영되었으며, 우리기업이 **대미(對美) 투자**를 통해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등 **자동차 232조 관련 입장을 전달**할 계획이다.

□ 이 밖에도 **정부 각 부처**는 미국 **상무부, 국무부, 국방부, 재무부** 등과의 **부처별 고위급 협의** 계기마다 **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도록 설득 노력을 지속 전개**하기로 했다.

□ 강 차관보는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될 경우 우리 수출 및 생산 등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**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치밀하게 대응**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,

○ 오는 11월 미국 **중간선거 이전에 보고서가 발표**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향후 대응과정에서도 **정부와 업계**가 관련 **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공유**하고 **긴밀히 협의**하면서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.

3 그간 대응현황

□ 그간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수입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국가안보 영향 조사에 대해 **민관 특별팀(TF)을 발족**(5.24)하고 **대응방향을 협의**해 왔으며, 지난 6월말 **미 상무부에 정부의견서를 제출**했었다.

□ 또한, **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지난 6. 27. ~ 29. 세계가스총회 참석차 미국 방문 계기 **미국 의회와 업계***를 직접 만나 자동차 232조에 관한 **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**하고 **적극적인 지지를 요청**하고,

* 미 하원 외교위원장, 하원 원내총무, 앨러배마와 조지아주 의원, 상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, 자동차협회(AAPC) 회장,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회장 등

○ 미국 **상무장관 앞 서한을 발송**(7.6)하여 한미간 공고한 동맹관계, 한미 자유무역협정(FTA)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 자동차 업계 우려가 반영된 점, 한국 투자기업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 등을 강조하며 **한국에 대해 232조 조치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**을 피력한 바 있다.

○ 아울러 7.10-11간 르노삼성자동차(7.10, 부산), 현대자동차(7.11, 울산), 한국지엠(7.11, 부평) 등 3社를 방문하여 **자동차 232조 관련 업계 영향 및 대응방향**에 대해 논의했다. 끝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동북아통상과 주원석 서기관/미주통상과 이은희 서기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 고 **회의 개요**

< 미중 무역분쟁 관련 실물경제 대응반 회의 >

□ **일시/장소** : '18.7.12(목) 08:00,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

□ **참석자**

○ **(정부)** 통상차관보, 무역정책관, 소재부품정책관, 통상협력국장, 기재부 통상정책과장,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장,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정책과장, 산업부 동북아통상과장

○ **(무역지원기관)** KOTRA·무역협회·무역보험공사 본부장

○ **(업종 협단체)** 철강협회 부회장, 기계산업진흥회·전자산업진흥회·반도체산업협회·디스플레이산업협회·자동차산업협회·석유화학협회·섬유산업연합회 본부장

○ **(연구기관)** 대외경제정책연구원·산업연구원 본부장

< 美 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 T/F 회의 개요 >

□ **일시/장소** : '18.7.12(목) 10:00, 무역보험공사 회의실

□ **참석**

○ **(정부)** 강성천 통상차관보(주재), 김영재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, 강부성 기재부 통상현안대책반장, 이대중 기재부 통상정책과장, 김성민 국방부 미국정책과장, 김장희 산업부 미주통상과장, 박종원 산업부 자동차항공과장 등

○ **(업계)** 박광식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,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, 박정호 르노삼성 이사, 정무영 쌍용차 상무, 배두용 LG전자 부사장 등

○ **(유관기관)** 김용근 자동차협회 회장, 신달석 부품조합 이사장, 안근배 무역협회 본부장 등